조선대 이사 1명, 신임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동참

"추천후보 아닌 사람 개방이사 선임은 잘못" 반발 확산

총동창회장 신임이사 승인 앞두고 법원 결정 영향 촉각

조선대 이사 중 1명이 총동창회장을 신임이사로 선임한 대학 이사회 결정에 반발, 신임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 동참하기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부가 최근 결원이사를 새로 선임할 경우 개방이사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학교측에 통보해, 총동창회장의 신임이사 승인을 앞두고 진행 중인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조선대 등에 따르면 최근 이사 8명 가운데 1명인 K씨가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당사자로 참여했다.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총동창회장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학내 자치기구 대표와 개방이사 추천후보 중 1명이 법원에 제기해놓은 상태다.

이들은 "결원이사 발생시 그 후임으로 개방이사를 우선해 뽑아야 하는데 개방이사 추천 후보가 아닌 총동창회장을 결원이사 후임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은 관련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K이사도 대학 구성원의 주장에 찬성하는 한편 가처분에도 현 이사로서 소송 당사자 자격이 충분한 만큼 참여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K이사는 "이사직에 연연하는 몰염치한 사람으로 비쳐 개인적으로는 당장 사퇴하고 싶지만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대학 구성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이사의 소송 참여와 함께 교육부가 최근 학교 측 질의에 답한 회신 내용도 가처분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당시 교육부는 관련법에 언급된 결원이사 발생시 개방이사 선임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에 대한 학교측 질의에 대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개방이사 추천후보에 포함되지 않은 총동창회장을 결원이사의 후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 결정이 관련법을 어겼고, 교육부측 입장과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 이번 법적 공방과 관련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을 심의했으나 과반수 찬성이 없어 부결한 경우 개방이사 선임안 자체가 폐기된 것이냐'는 학교측 질의에 대해서도 "부결 여부와 관계없이 개방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대의 한 관계자는 "법을 어기고 절차를 무시한 이사회 결정은 철회돼야 하며 개방이사 중에서 후임 이사를 선임하고, 임기가 모두 끝난 이사들의 후임 이사 선임절차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현재 조선대 이사회가 요청한 총동창회장의 이사 승인을 다음달 초순까지 마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학교측은 이에 맞서 총동창회장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동시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본안소송도 진행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가을밤 수놓은 '낭만연주' (주)이건창호와 광주일보사가 주최한 제24회 이건음악회가 29일 광주문예회관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피아니스트 시몬 디너스틴이 바흐의 '골베르크 변주곡'을 연주, 관객들을 감동시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015년 의사-환자 '원격진료' 가능…국내 첫 도입

이르면 2015년께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정보통신(IT) 기기를 활용, 의사가 멀리 떨어진 환자의 상태를 진단·관리·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미 현행 법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의 의사가 다른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자문해주는 의사-의료인간 원격진료는 가능한 상태이지만, 진단·처방을 포함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의사-환자 원격진료 허용 범위는 기본적으로 상시적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연합뉴스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

교육부, 13개 시도교육청에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로 활동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한 달 이내 학교로 복귀하라고 통보했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13개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 교육청 등에 노조 전임자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진보성향 교육감이 있는 강원, 경기, 광주, 전북 등 4개 교육청은 복귀 통보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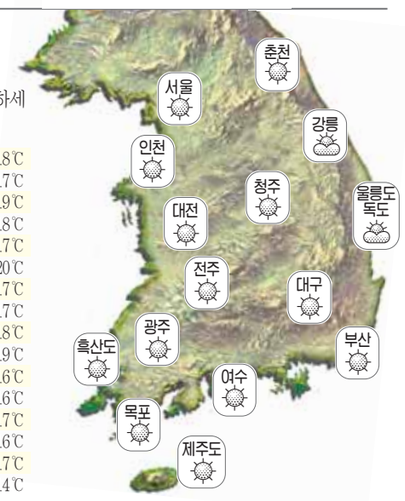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52분 해짐 17시 40분 | 달뜸 02시 15분 달짐 14시 57분

청명한 하늘

일교차 크니 건강에 유의하세요.

광 주	맑음	9/18℃
목 포	맑음	10/17℃
여 수	맑음	13/19℃
나 주	맑음	4/18℃
완 도	맑음	10/17℃
구 례	맑음	5/20℃
강 진	맑음	8/17℃
해 남	맑음	8/17℃
장 흥	맑음	8/18℃
순 천	맑음	5/19℃
영 광	맑음	6/16℃
진 도	맑음	8/16℃
전 주	맑음	9/17℃
군 산	맑음	9/16℃
남 원	맑음	7/17℃
흑산도	맑음	13/1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m
먼바다	북서~북	0.5~1.0m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0m
먼바다	북~북동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먼바다	북서~북	1.0~1.5m

	밀물	썰물
목포	10:35 23:01	04:10 16:23
여수	06:14 18:17	12:04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31(목)	11/1(금)	2(토)	3(일)	4(월)	5(화)
날 씨						
최저/최고	6/18	8/20	9/20	10/18	8/18	5/19

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내달 7일 결론

배심원 '무죄' 평결…재판부는 결론 못내려

지난 대선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52 · 우석대 교수) 시인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7일 내려진다.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은택 재판장은 28일 오후 11시 40분께 국민참여재판을 마친 뒤 "안 시인에 대한 선고를 오늘이 아닌 11월 7일 오전 10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은 재판장은 "배심들의 판단과 재판부 견해가 일부 다르다"면서 "안 시인의 혐의에 대해 배심원(8명)이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는 (혐의) 일부에 대해 판결을 달리했다"고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수능 광주 응시자 재학생 늘고 재수생 줄어

올 2만1703명…A, B형 문제지 선택 주의

기온 평년과 비슷…'수능한파'는 없을 듯

다음달 7일 치러지는 수능시험의 광주지역 응시자가 재학생은 늘고 재수생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 지역 수능시험 수험생은 2만1703명으로 지난해보다 99명 줄었다. 또 재학생 응시자는 357명이 늘었지만 졸업생 지원자가 409명 줄었다.

최연소 지원자는 14세 여학생, 최고령 지원자는 71세 남성으로 확인됐다. 시험장은 공립학교 14곳, 사립학교 24곳으로 820실의 시험실이 설치된다. 시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된 수준별 A, B형 시험문제지 선택에 주의를 당부했다. 영어의 경우 수준별 유형에 따라 시험장 학교가 다르지만 다른 과목의 경우 금호고·중앙여고·서석고·전남여고의 일부 시험실에서 선택형 문제지가 섞여 배포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등 전자기기는 시험실 반입이 금지돼 수험생과 학부모는 주의해야 한다. 단순 시계의 경우 지니고 입실할 수 있지만 최근 출시된 손목시계형 스마트폰 등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주머니나 가방에 넣고만 있어도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해 시험 기회를 박탈당한다.

한편 수학시험일인 다음 달 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고 기온이 평년과 비슷해 '수능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 달 7일 우리나라는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아침에는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시험일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제주 13도, 부산 12도, 강릉·청주·전주·대구 8도, 전주 7도, 춘천·대전 6도 등이다. 낮에는 부산·대구 20도, 제주 18도, 광주·전주 17도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시험실 휴대 금지 물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같은 전자기기.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개인 샤프펜슬, 예비 표시용펜.

광주보건대·전남과학대 세계 수준 전문대학 선정

교육부, 연구비 30억씩 지원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으로 광주보건대, 전남과학대 등 10개교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WCC는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을 갖춘 전문대를 선정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학교 규모와 성과지수에 따라 연간 평균 10억원 안팎을 3년간 지원하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등에서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